



주로 위 철물을 생략하고 브레이싱 역할을 합판에만 의지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서 비를 한번도 맞치지 않고 작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일이므로 합판의 팽윤으로 합판으로만 브레이싱을 잡는것은 옳지 않다.

많은 목조주택현장에서 이 중요한 X - 브레이싱 설치를 하지 않고 시공되어 지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WB 126 C 철물은 폭이 1.5 인치이고 그 길이가 12 피트단위로 절단 눈금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있다.

스틸하우스에서는 폭이 넓은 도금철판을 쓰는데 폭이 넓은 필요는 없을것으로 본다. 필히 브레이싱이 필요한 부위를 판단해서 곳곳에 브레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X 브레이싱은 머드실까지 고정되어야 한다.



내부에 가로 질러서 되어져 있는 목재가 브레이싱역활로 고정 시켜 놓은 것인데 이는 나중에 내부 작업시 제거할 것이다.

현재 탑플레이트 위에 더블 탑플레이트를 밑에 것과 서로 어긋져서 물리게 작업하는 것.



어긋지게 물려있는 사진.



기초 콘크리트선과 썸실러.머드썸.보통플레이트가 서로 어긋지게 물려있는 사진임.



(주)엔에스홈 - 심슨스트롱타이 국내 독점공급원

구입문의 : 031-766-0800